



3·11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총력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음 8월 30일) 제3596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 국회의원 교육정책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전북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기의 전북교육 살리기 '머리 맞대다'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개정과 유보통합 재정 확보 등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년 전북 국회의원 교육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주요 간부들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구감소와 학력 저하 등 위기에 처한 전북교육의 현실을 짚어보고, 교육을 통해 전북을 살

전북자치도교육청-전북 국회의원, '2024 교육정책 간담회'

서거석 교육감, 자율학교 운영 특례 개정 등 지원 요청

"상향 평준화 통합모델 필요" 유보통합 관련 예산 지원도

이원택 민주 도당위원장 "전북교육청 정책 방향에 공감"

려내지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서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인구소멸 지역이어서 학령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차별화 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자율학교 운영 특례 개정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 특례 등 새로 마련된 교육 특례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상향 평준화 된 통합모델과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기초학력을 넘어 학력신장으로"라는 전북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고의 교육 명문으로 위상을 높이는 데 전북 정치권의 역할을 모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국회의원과의 교육정책 간담회를 연 3~4회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벼) 9만9,631톤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매입물량인 9만3,295톤(조곡)보다 6,336톤이 증가한 것으로,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의 노력 덕분에 역대 최대 매입 물량을 기록하게 됐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정부가 농가의 소득 보전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 전국적으로 55만5,555톤(조곡)의 공공비축미가 매입될 예정이며, 이 중 전북 지역에서는 전국 물량의 17.9%에 해당하는 9만

전북자치도, "올 공공비축미 9만9631톤 매입"

전년보다 6336톤 많아... 산물벼 내달 30일 · 포대벼 연말까지

9,631톤이 매입된다. 이는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농가의 편의를 위해 산물 벼와 포대 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산물 벼는 수확 후 바로 농업인들이 RPC 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방식으로 11월 30일까지 매입하며, 포대 벼는 건조·포장된 벼로 10월 10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이 이뤄진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전국 단일가)으로 매입하며, 매입 대금은 벼 수매 직후 포대당 중간 정산금 3만 원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농협과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출하 날짜 및

매입장소를 확인해 배정된 날짜에 공공 비축미 매입에 참여할 수 있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 집중호우와 벼멸구 발생 등의 어려운 재배 환경을 극복하고 벼 수확에 힘써 주신 농가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공 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해 도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10월 3일 개천절 등에 따라
신문은 7일 발행합니다.

국방부, 국군의 날 기념식

'괴물 미사일' 현무-5 첫 공개

미 공군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도 선보여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1일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도 성남공항 상공을 비행해 한미동맹의 견고함도 과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공에서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탄도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L-SAM)을 비롯해 한국형 3축 체계 자산들이 대거 등장했다. 가장 주목을 받는 무기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현무-5. 현무-5는 탄두 중량만 8(톤)이 넘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파괴력은 전술핵에 맞먹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무-5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된다. 다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 3,000~5,500km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 인팍에서는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힌다. 전략폭격기 가운데 유일한 초음속 기종으로 팔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도착해 작전을 펼 수 있고, 폭탄 60톤을 탑재할 수 있다. /뉴스

행안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작년 12월 26일,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3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 절차, 자금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산악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전북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에 비해 완화된 투자 기준을 적용받으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믿고 구매하는 초특가

장수군 직영 쇼핑몰

장수몰 MALL JANGSU MALL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천혜자연 장수군의 맑은 물로 가꾸어진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